| 2026.9.20 | 연중 제 25주일 |
|---|---|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성가번호 |

| 입 당 | 봉 헌 | 영 성 체 | 파 견 |
|---|---|---|---|
| <폴더 44번> | <폴더 1번> | <폴더 20번> | <폴더 15번> |
| 태양의 찬가 | 순례자의 노래 | 나를 받으옵소서 | 꽃 |

### 제 1독서 | 이사야서 55,6-9

### 화답송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제 2독서 | 필리피서 1,20-24.27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 20,1-16



## <오늘의 독서와 복음>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 <오늘의 복음 해설 - 교황 프란치스코>

포도밭 주인은 다섯 번에 걸쳐 광장으로 나가 자신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아침 여섯 시, 아홉 시, 열두 시, 오후 세 시, 그리고 오후 다섯 시' 이렇게 다섯 번입니다. 자신의 포도밭을 위해 일꾼들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광장으로 나서는 주인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그 주인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항상 부르시는, 모든 이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이처럼 행동하십니다. **하느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 나라에 모든 이를 초대하며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세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바깥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갇혀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 사랑의 계획에서 제외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에, 사람들을 찾아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울타리(경계)' 바깥으로 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묵주기도로 만나는 은총의 순간 <환희의 신비 1-3단> : Sr.최지영 프란치스카

묵주 기도는 복음의 깊은 강줄기를 따라 걷는 순례의 여정이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을 점점 깊이 묵상하게 된다. 그렇기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 기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리아와 함께 바라보는 기도"라고 말하며, 그것이 하느님 백성의 내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임을 강조하셨다.

이 가운데 특히 환희의 신비는, 마리아의 시선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안에 육화되어 오는 결정적 순간을 묵상하도록 돕는다. 이 다섯 개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과거 사건의 기억을 넘어,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 환희의 신비 1단 | 사랑하고 사랑받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이 첫 번째 신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한 인간, 나자렛의 앳된 여인에게 다가오신 순간을 묵상한다. 천사의 인사는 마리아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이다.

하느님께서는 저세상 너머에서 수정 구슬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라고 응답할 때,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순간, 사랑에 뿌리내린 기쁨은 마치 물 댄 동산의 나무처럼 고요히,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단순하면서도 전적인 수락은 모든 제자들의 첫 발걸음이 된다.

## 환희의 신비 2단 | 나눔과 연대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루카 1,39)**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전파자로서 길을 떠난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다. 사랑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마리아는 누군가의 필요를 감지하고, 그 부름 앞에 "서둘러" 길을 나선다. 그녀가 엘리사벳에게 간 것은 단순히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루카 1,36)라는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이 든 친족의 고통을 짐작하고 함께하기 위한 깊은 연대였다. 마리아는 그저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려 "석 달 간" 그곳에 머물렀고, 불안과 기쁨을 나누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 묻는다. 다른 이의 필요에 나를 내어 주기 위해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화려한 말이 아닌, 가까이에 머무는 마음의 온기에서 이루어진다.

마리아처럼 다른 이의 필요와 그의 리듬에 나를 기꺼이 맞추고, 그 곁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순수한 기쁨의 전달자가 된다.

## 환희의 신비 3단 | 가장 낮은 곳의 기쁨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루카 2,7)**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이 내어 준 가장 작은 공간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화려한 궁정이 아닌 어두운 마구간에서,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가 아닌 밤의 고요한 속에 태어나셨다.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는,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연약함 안에 기꺼이 머무심을 보여 준다.

성탄의 기쁨은 이처럼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빛이 가득하다.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셨고, 그 자리가 바로 인간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에서, 사랑이 어떻게 자기를 비움으로 드높은 거룩함을 드러내는지 배운다. 이 신비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고 기뻐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가난할 때, 그 자리에 하느님의 빛이 깃든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증표가 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처럼, 기쁨은 거대한 사건이 아닌, "한 번의 눈길, 한마디의 말" 안에 담긴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1코린 1,27)**

## 공지 사항

*** 오늘 주일 미사를 함께 봉헌해 주신**
**'Fr.최동민 파스칼(칠레 선교)' 환영합니다!**

**1. 추석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9월 27일 주일미사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이웃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을 두고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30분 전부터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 지향 신청 안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미사 지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 입구에 놓여진 '미사 지향 신청서'에 지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추석 명절 - 식사 나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다음주 주일 미사 후에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9월 온라인 모임 안내**
- 9월 22일(화) 저녁 7시 - Zoom 모임
- 9월 29일(화) 저녁 7시 - Zoom 모임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1코린 1장~3장**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회의실 ID**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4. 세례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10월 25일에 세례성사를 받는 다음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신자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인숙, 신미란, 차진아, 이효령, 신정인**
**허린, 오성배, 양현희, 유아인, 서정환**

**5.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9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고다인 라파엘라 (9.29)**
*** 김우경 가브리엘라 (9.29)**
*** 박정연 미카엘 (9.29)**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 봉헌금 & 교무금 | (9월 12일 ~ 9월 18일)

| | | | | |
|---|---|---|---|---|
| **봉헌금** | $ 235 | | | |
| **교무금** | $ 420 | | | |
| 강원혜 | 구민식 | 서미숙 | 양홍석 | 윤현태 |
| 이국원 | 이지영 | 정수민 | 정은영 | 젬마송 |
| 주정자 | 황정빈 | | | |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 | |
|---|---|
| **매주 화요일** | 저녁 7시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 | |
|---|---|
|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
|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 9월 공동체 실천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